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1. 11.(월) 06:00 < 11.11.(월) 석간 > 배포 2024. 11. 8.(금)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선협상 개최

- 11.11(월) ~ 14(목), 서울
- 서비스, 공급망, 디지털, 바이오 등 논의 가속화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이 11.11(월)~14(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19년 서명, ’21년 발효)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 개선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올해 1월 서울에서 제1차 개선협상, 3월 런던에서 제2차 개선협상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3차 개선협상은 지난 7월 영국 총선으로 노동당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협상으로서, 우리 정부는 서비스, 공급망, 디지털, 바이오 등 분야별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영국은 우리의 핵심 우방국가이자, 첨단 산업, 에너지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서비스·투자 등 기존 협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망, 젠더, 바이오 등 신진 규범의 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장 代	박다정 (044-203-5790)
		담당자	사무관	성소윤 (044-203-58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